東亞日報
夕刊
六月十二日(土)

强壯·補腦·强壯 不老丸

赤軍領袖九名에게 全部銃殺刑을宣告

十一日蘇聯邦最高軍事裁判所에서

控訴不許、一審으로判決確定

【모스크바十二日發同盟至急報】蘇聯邦最高軍事裁判所는 十一日 午前十一時부터 울리히裁判長 于與로 元國防人民委員部次長 투하체프스키元帥와 및赤軍袖領八名에 關한叛亂間諜行爲에 對하야 審議한結果 一九三四年十二月一日의 特別法令에 基하야 被告의 軍職을 褫奪한後 全部銃刑에 處할 뜻의 宣告를 내리엇다 右特別法은 控訴를 不許하고 一審으로써 判決이 確定하는 것으로 되어잇음으로 赤軍의 領袖는 悲慘한 最後를마칠것으로 觀測되다(寫眞은 트元帥)

트元帥以下銃殺

國際電話의連絡一切遮斷

今夏의大演習도中止

【모스크바十二日發同盟】투하체프스키元帥의 叛逆事件公表와 同時에 蘇聯政府는 外國과의 國際電話의 連絡을 一切遮斷하엿다 十一日夜來 모스크바市內의 警戒는 極히 嚴重하다

【모스크바十二日發同盟】元國防人民委員次長 투하체프스키元帥 其他被告八名은 蘇聯邦最高法院의 判決에 基하야 即時銃殺에 處刑되엿다

【모스크바十二日發同盟】蘇聯國防人民委員部는 十日如左히 公表하엿다 赤軍司令部의 根本的改革을 爲하야 今夏年次大演習은 中止한다

蘇聯政府公表

【倫敦十一日發同盟】[illegible]

皇太后陛下 賀茂兩神社에 十二日御參拜

【京都十二日發同盟】[illegible]

秩父宮同妃兩殿下 노르웨王宮에 御滯在하십니다

【런던十一日發同盟】[illegible]

提案의實現希望

濠洲首相言明

【런던同盟特派員十一日發】[illegible]

近衛首相十一日 松岡總裁와會談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十一日午後四時半 首相官邸에서 [illegible] 說明을듣고 懇談을하엿다

第一必要한것은 物資의供給力增大

賀屋藏相西下車中談

【大阪電話同盟】賀屋藏相은伊勢神宮參拜次十一日 午後十時半 東京發 西下하엿는데 車中에서 當面의財政經濟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나의 財政經濟政策에 對한 考察에 對하야는 이미 再三言明한것처럼 經濟力의 充實發展 特히 物資供給力의增進에 [illegible]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겟다고 생각하고잇다 今日 內外時局에鑑하야 國防의充實 國民生活의安定을 圖할것은 말할것도 없는것으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消費者代表增加

物價對策委員에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物價對策으로 爲先前內閣에依하야 設置된 臨時物價對策委員會의 强化를 必要하다하야 委員會의構成에 再檢討를 加하고잇는데 [illegible] 消費者代表 [illegible]

不干涉體制補强案 各國이受諾決定?

英外相、佛獨伊大使와協議

【런던十一日發同盟】이든英外相은 十一日午後三時 佛國大使콜방氏 獨逸大使리벤트로프氏 伊太利大使그랑디氏를 外務省에招致하고 不干涉體制補强案協定案에 對하야 約四時間에 亘하야 最後的協議를하엿다 會議의內容에對하야서는 아모것도 公表되지안헛으나 [illegible]

[illegible]

兩角豫審判事胃病

悲壯한決意로出廷

帝人公判十二日開廷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日滿產業重要會議

首相의提言으로開催?

【東京電話同盟】[illegible]

臨時局長會議

[illegible]

滿洲國首腦人事

行政新機構에基한것

【新京十二日發同盟】七月一日부터實施되는滿洲國行政新機構에 基한 首腦人事에關하야는 [illegible]

▲主要人事

國務總理大臣	張景惠
治安部大臣	于芷山
國務院總務長官	星野直樹

[illegible]

近衛首相十二日西下

【東京電話同盟】[illegible]

南總督의渡東

十四日京城發

[illegible]

不正業者들一齊히檢擧

天津總領事館配事一部解禁

【天津十二日發同盟】[illegible]

地方長官도異動

【東京十二日發同盟】[illegible]

辭令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祝續刊
X光線科 外科
英語 [illegible]
技術者招聘
一、資格 (一)電氣技術者 (二)家具設計者
一、年齡 二十五歲以上四十歲以下의男子
一、募集締切 昭和十二年六月二十五日
一、志願者 自筆履歷書에最近寫眞을付하야本人이來談하시오
京城·鐘路 和信
門專科兒小 方斗煥 四街 內科
失業者案內
本報京城 カネヤ商店
朝鮮合會 時兆社 京城療養院
株式會社 서、護謨工社
京一帽籍製造所
金剛山寫眞部
日之出
金剛旅館
京城旅館
溫井旅館
京城食堂

菖蒲에 고이 머리 감고 白石淸流에 거니는 端午

오늘이 음력 五월五일, 이날을단오(端午)라하고 혹은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한다。이날은 一년명절중에 몇째가지안는명절이다。

四월八일은 불가의 명절이오, 五월五일은 속가의 명절이다。이날은 어린이들은 창포(菖蒲)물에 목욕하고 창포잠을 머리에꽂고 붉새고흔 새옷으로 제비갈치피이길치고이 이단장하야 백석청류(白石淸流)가이나 록음방초(綠陰芳草) 새이로 여름맞이에 재미유쾌하게노는날이오 청년남녀들은 추천과 사회와또는선유로 소상하는날이다。추천각회는 별로 의미가없으나 이날선유에는 경도회(競渡會)란 명칭이잇으니 예전 초(楚)나라 굴원(屈原)이란 충신이 임금에게 간하다가 듣지아니함으로 五월五일에 멱라수(汨羅水)에 빠저죽엇으므로 후인이그 충성을 생각하고 굴원의송장을 건진다는의미에서 여러 선녀기를 닷투는 것이다。

추천과 각회는 고래로 전조선적으로각지에 다 잇엇으나 서북조선이 제일번창하엿고 남조선은 비교적적은세음이다。예전이 소대종때에는 가궁엄에 단오부적(符籍)이란것을 궁문에붙치고 이날행도를 반사하엇다한다。그 풍조이내려와서 지금도 상공가에서는 앵도、외이로 단오천신을한다。금년은 우순풍조의 풍년조짐이 만고 [illegible] 각지에서 각회、추천의 놀이가 성행할듯 하나。(사진은창부사는광경)

不食長生의仙道敎

延人 二百餘名檢擧

幹部는北滿洲에潛伏中被逮

平康署에서 三年繼續活動

【平康】 강원도평강군현내면리무러(平康郡縣內面[illegible])는 고원지대일반 인가가 허소함을 이용하야 선도교(仙道敎) 근거지를 건설하려고 중요간부가 리목리에서 활동하는것을 소화十년四월十五일에 평강경찰서(平康警察署)에서 단서를 잡고 활동하야 그 당시 백여명의 교도를 검거취조하주 봉구린경의 一부는 一단락으로 송국되어 유치 예심중이고 수모자 교주를 체포치못하야 그간 암암리에 활동을 계속하고잇든 당서에서는 금년四월에 소위 교도의 대선생(大先生)이라는 경성부하정(樓下町)에서 체포한 김용기(金容基) 二名(四[illegible])와 부교주 김중섭(金重燮) 二名(一[illegible])과 북아현정(北阿峴町)三번지六○호에서 잡히고 중요간부등은 금년三월경에 평강서원이 북만주까지 급행하야 잡복한것을 체포하여왓다。방금 二十여명을 검거하여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入敎金六萬圓詐取

家屋賣買도爲業

그선도교 내용을듣건대 교도복서은 불식장생(不食長生)이라는 교시(敎示)로 소화二년도부터 시작되어 경기(京畿)、황해(黃海)、강원(江原)、함남북(咸南北)지방을 망라하야 전도한 그교도수가 一萬二千여명에 달하고 입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명에 五원이상내지 一원까지 사취한 금액이 六萬여원의 거액에달한다한다。

입교금으로 부교주인김일세는 소위 낙원수대생활과 기타가옥건설매매경영까지하엿다는데 현재 경성시내에 가옥이 [illegible] 여채의대건물이잇다고한다。

소화十년四월이래 오날까지 검거수는 여인원이 수백여명에 달하엿다는데 평강서원이 불면불휴하야로 활동중이다。

中央都賣市場

京城驛構內 二萬坪에 建設

八月起工、十月부터開市

수산시장(水産市場)영업[illegible]문제도 경기도의양보로 一단락을고하게되엇으므로 경성부에서는 드디어 오는七월하순이나 혹은八월상순부터 중앙도매시장(中央都賣市場)의 건설에 착수할방침을세우고 방금 그 설계서(設計書)의 대강은 다음과같다。

부지(敷地)는 경성역구내 현재 장작저장소(長柝貯藏所)二만평을 사용하기로되엇다는바 그땅안에 드러갈것은 생선도매장(生鮮都賣場)이 六百六十평 과실도매장(果實都賣場)이 七百평 부속상인매점(附屬商人賣店)이 千五百평 시장사무소가 二百三十평 기타 부속건물 공지등이라 한다。

동시장 사무소는 최신시설근대식 『콩크리트』三층양옥을 건축하며 생선부도매장은 현수산회사사무소를 도괴하야 화장하기로되엇으며 과실도매장은 목조(木造)창고와 부속상인점부는 아직 [illegible] 공사를 시작하기로되엇다는바 八월에 착공하면 十월중에는 완성될것이라 한다。

京城運動場擴張

工費四十三萬圓豫算

三년후에 열리는 올림픽(五輪)대회를 기회로 외국선수의 유치를 계획하는 경성의 운동계(運動界)에 회합이 각자 [illegible] 서는 현재의 운동장은 대단히 협착하야 그것을 대규모로 확장개수할 사를 착수하기로 결의하엿다。개수확장비 四十三萬四千二百원

一、十九萬七千九百二十圓 陸上競技場擴張改修費

一、四萬一千五百二十圓 野球場擴張改修費

一、三萬一千八百圓 庭球場擴張改修費

一、一萬圓 水泳場擴張改修費

一、二萬六百六十圓 雜工事費

一、二萬四千五百八十二圓 設計監督費

八十一원의 용도(用途)는 다음과 같다。

三淸公園週遊路

二萬圓豫算으로着工

경성부에서는 금년도에 약二만원예산으로 삼청공원(三淸公園)의 주유도로(三淸公園週遊路)를 설치하기로 경정되엇다는바 이미입찰(入札)까지 마치엿다 한다。

따라서 동공사는 쉬이착수하게 되리라는데 금년안으로 동로는 완성을 보게될것이라라 한다。

假"十圓"의一生記

逮捕된假紙幣

本色은眞操代!

滿洲에서轉輾京城에서行勢타

結局은警察손에絶命

『十원』짜리로변조된『一원』짜리의일본은행권을 본은행에서 [illegible] 주일동안 『가짜부자』?도롯을 하다가결국은경찰서에 들어간이야기 十일 오후二시경 부내대평정(?)서원이 수천정(?町)三정목 상수리민선한(閔[illegible])

[illegible] 限 假名 방에서 十원으로 변조된 一원지폐(일본은행권)를 발견하고 이출처를소급(遡及)하여 보았든바 보통이고 교파서에나오는 『十전짜리의 반쟁』보다 솜씨도 더 『뤼언』한 『현심천 정로를 밟고 잇엇다한다。

첫『의 대가로 받은것으로서 그남자란 아현정(阿峴町) 김(金)고분상(?)이며 그는 이를 동정 연유상(?)으로부터 이는 또 그는 이를 동정 아채상으로부터 이로부터 아채상은 이를 동정 김무방의 연유순(?)이라는 노파로부터 받은것인데 연씨는 이 문제의 동정 만주 삼강성의 [illegible] 三江省[illegible] 縣 신모라는 남자로부터 정조의 대가(代價)로 받은 것이라 처음쟁처와 마스방의 방건장 가 우연이라고는 하나 도단한 정조없이 라는 여성의 정조는 『一치에 니 』가 아닌수없다。

이리하야 단 一주일사이에 『가짜신사』노릇한 『자래군(君)』은 그의 동파만고 아닌아닌 일생을 경찰서에서 마을 다치면서 인생을 얼마나 비웃엇을것인가。

[illegible]면서의 十일까지 매각매수는 二전정주 四四二、○八二매 매가四전정주 二四七、九二四매 (매가五전 四전정주 一、○七三五六九매 (매가六전) 二천엽서五五、二一八매 (매가五전) 한계 一、五三七、八二三매로 항공가부의 총액은 五○、三一○원에 달하엿다。

航空寄附郵便

[illegible]부터 발치시작한 애국우편절수와 [illegible]

注目되는朝鮮의社會政策

救窮、救災、救療等 諸般施設을擴充

自然的災害와施設不備한朝鮮에 社會事業擴充은緊急

조선의 사회사업(社會事業)으로는 이재구조(罹災救助) 진휼구호(賑恤救護) 궁민구조(窮民救助) 구료시설(救療施設) 복리시설(福利施設) 등등 각방면에 손을대고잇으나 예산관계로 아직그시설이 광범위에 미치지못하엿고 근래에와서 사회과(社會課)와 사회교육과(社會敎育課)를 독립시켜 이방면사업의 확충은 꾀하야오는터이지마는 오늘조선의 현실은 매년거듭하는 여러가지 자연적재해(自然災害) 인위적(人爲的) 각종시설(施設)의 불비로말미아마 사회적 중대한 문제가 만흔터이다。

그런데 이것은 조선뿐아니라 소위국민생활(國民生活)의 안정(安定)은 온세계가떠드는 문제이며 이번 근위내각(近衛內閣)에서는 사회정의(社會正義)에 기조(基調)를두고 농민경제생활에 중점을두어 여러가지정책을 계획하는 일방에 벌서 사회보건성(社會保健省)을설치하라는 계획이진행되거니와 조선총독부에서도 지난도지사회의(道知事會議)와 중추원회의(中樞院會議)에서도 사회사업시설의 확충에 어느정도의 사회사업시설이 앞으로 어느정도의 사회사업이나 확충할것만은 사실이나 예산을 보다 이시설에는 만흔경비를 세울는지 엄마만한 예산편성기를 앞두고 자못 주목되는터이며 오늘사회적 정세로보아 종래 조속지협(?)보다 에 북파하든사회시설경비와 형식을 버서나서 명실상부한사회시설확충의 대예산이 요구되는터이라 한다。

各種矛盾과調和 社會立法도緊急

각종 사회사업시설이 부족하거니와 사회입법(社會立法)도 불비한 한정이없어 오즉 대표적으로는 다만 농지령(農地令) 하나뿐 이러한 조선사회도 근대적(近代的)발달을하는데 따라서 각종문회로 조화가 중대한문제이나 여기에대한 입법(立法)은 불만하것이없다。례를들면 공장법(工場法)、(노동보호)법(法)도없거니와 모성(母性)이양(兒童)보호의 법규(法規)가 없음은 물론 오늘같은도시에서 문제되는차가지법(借家借地法)도없고 기외 건강보험법、노동자재해구조법(勞動者災害救助法)、구호법(救護法)등의의조정법(調停法) 하나도없는만치 그의 제정실시는 시급을 요하는당면문제라 하다。

藥學展覽會

오늘부터 一일간

부내 경성약학전문학교(京城藥學專門學校)에서는 一반에게 납리 약학(藥學)에대한 관심과지식을 선전하기위하야 매년 연중행사로 열어오는 약학전람회(藥學展覽會)는 금년으로서 제四회를 마지하게되어 十三일(十三)양일간 동교구내에서 개회중인바 금번은 예년에보지못이든 풍부한 내용의 한약、제약、신약、조제、분석화학、독와사、위생화학、사진부등이 설치되어잇고 연구품들이 더한층 이채를띄고잇어 내관자로하여금 흥미를 더욱 여흥(?)하여주고 잇다。(사진은 동회장)

白晝、少年强盜

남의집에 "뽈" 떠러젓다고침입

二名이釜山署에被逮

【釜山】 지난十일오후 四시十분부내 대신정(大新町) 모회사원의 부인이 공설시장에가서 찬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에들어설라고하자 十三四세의아이二명이달려왓어집에『뽈』이떠러젓다고 빙자하고 집안에침입하야 녀자의뒤에 단려들어 가슴에 너엇던 현금五원을 강탈도주하엿는데 부산서에서는 백주에소년강도사건이 발생되엇다고 비상활동을한결과 지난十一일 오전十一시경에 행정 소화관 뒤에서 대신정六(三)번지 박운조(朴運祚)(一六)와 영주정 이용(李[illegible])(一六)양명을 정상형사부장이 체포취조한결과범행을자백하엿다고한다。

道議員選擧違反

關係十四名處罰

地方法院仁川支廳서

경기도회 회의원(京畿道會會議員)의 부천군(富川郡) 입후보로출마하야 당선되엇든 만치풍이(萬治豐)는 선거법위반의 사실이 발각되어 당선을 취소당하는동시에 관계자 十四명은 예심에 회부되엇다가 이번 인천지청(仁川支廳)에서 만치풍외 운풍원 정창수(鄭昌洙) 강서주(姜[illegible]) 강석구(姜錫九)등 四명은 공판에회부되고 다른 十四명은 다음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게되엇다。

▲李時雨▲李[illegible]▲尹[illegible]▲鄭[illegible] 壓根以上五十圓 ▲李[illegible]新▲鄭[illegible]▲任[illegible]

▲河連洙以上四十圓 ▲崔東植▲金[illegible]以上三十圓

隧道開鑿中에 五名이死傷

中央線鴻丘 터널工事中에

十一일오후十一시반경 목하개착공사중인 중앙선(中央線) 교구(鴻丘)터널사장이 문어저서 서본(西本)조인부 二명은 즉사 三명은 중상을 입엇다는 보고가 철도국에 들어왓을뿐으로 상세한것은 아즉알수없다。

大邱無電局

二十一日에開局

경북달성군 수성면신암동(壽城面新岩洞)에 일즉부터 건설중이든 대구무선전신국(大邱無線電信局)에서는 드디어 二十一일부터 개국(開局)하기로 되엇다 동시에 대구무선전신국 신암동종신소(送信所)도 동일부터 개소하한다。

◇槪況 七六五耗의 高氣壓은 日本海에 퍼지고 滿洲西部 南支那、東支那海에는 低氣壓이 있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 明日은 (?)曇한데 滿洲中部 北九州에 大概 天氣가 조코 朝鮮海峽에서 北海道以北은 天氣가 (?)하여 비가 나리고 조타。

氣溫과降雨量

(今朝六時)

昨日氣溫 最高 二八度九 最低 一三度六

地名	氣溫	降雨量
滿州	十九度	—
釜山	十七	—
木浦	十八	—
大邱	十七	—
全州	十七	—

故鄕에서一戰

蹴球野球로 各地에轉戰

東京留學生軍來征

在東京朝鮮留學生으로 조직된 蹴球、野球두단이 各各 今番夏期休暇를 利用하야 故鄕訪問의 遠征을 하리라는데 遠征軍의 遠征地와 멤버는다음과 같으며 時日은 追後發表하리라 한다。

蹴球

遠征希望地、大邱、京城、海州、安州、秋[illegible]、平壤

멤버

部長 朴[illegible] (中大) 監督 金允河(中大) 主將 林[illegible]義(日體) GK 金化城(立大) FB 金[illegible] (法大) 安俊化(法大) 朴性大(明大) HB 金容[illegible] (早大) 金炳[illegible] (早大) 金平善 (日體) 黃[illegible]鎔(明大) 崔東淳(日體) FW 金[illegible] (中大) 尹[illegible] (農大) 高[illegible] (早大) 朴[illegible] (明大) 南[illegible] (明大) 張[illegible] (法大) 鄭[illegible] (明大) 李[illegible] (明大) 朴[illegible] (日體) 文[illegible] (法大)

野球

遠征希望地、大邱、木浦、光州、群山、京城、海州、平壤

멤버

部長 金[illegible] (中大) 相談役 [illegible] 定煥(日大) 朴容七 監督 洪文吉 (日大) 마네자 朴慶元(法大) 主將 陳性燮(立大) 投手 吳[illegible] (日大) 捕手 朴[illegible] (法大) 一壘 李起鎬(日大) 二壘 陳性燮(立大) 三壘 李東[illegible] (法大) 遊擊 韓用大(農大) 左翼 張[illegible] (立大) 朴慶元 (法大) 中堅 洪文吉(日大) 右翼 [illegible] 鄭(日大) 李[illegible] (專修) 補缺 [illegible] (明大)

그리고 蹴球部는 東京 神田區 [illegible] 町 YMCA 朝鮮留學生蹴球俱樂部로 野球部는 [illegible] 町 野球俱樂部로 通知해주기를 바란다 한다。

學生싸이클

펑킨軍進出

日本學生自轉車競技聯盟主催의 第一回全日本學生自轉車競技大會는 來十九日午後東京芝公園運動場에서 開催하게 되엇는데 朝鮮學生으로는 『싸이클』(自轉車)에 天才를 가지고잇는 李[illegible] 君과 [illegible] 君이 出場하기로 決定되어 [illegible] 맹렬한 연습을 하고잇는 [illegible] 大會에 出戰하게되어서 一般의 興味를 끌고잇다 (현정종공이 생군)

顧客諸位에게二重奏

犧牲的大奉仕日

自 昭和拾貳年六月拾日

至 昭和拾貳年六月卅日

右記期日은 金參百五拾圓也라는經費를犧牲하고시左記規定으로奉仕합니다

여러분의빠ー하와이 女給中에 어느女給이써ー비스가第一인지 女給들을督勵鞭韃하시는趣旨下에만히投票하야주십시요 當選者貳拾名限하고薄謝進呈 郵送謝絶 用紙請求와受付場所는 빠ー하와이 호ー르에서

錦上添花로 猛熱한暴暑를 擊退식힐夏節의唯一한特製美術品인堅固한武器를進呈 詳細는 빠ー하와이에問議

京城仁寺町パコタ公園뒤

빠ー 하와이

電光二八七八番

最新流行秋冬物見本市

中小商人의仕入好期到來

朝滿百貨大見本市

會期 昭和十二年六月廿三日、廿四日、廿五日 三日間

會場 京城南大門通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出品店 東京、大阪、名古屋、桐生、金澤代表製造工場五十餘店

特典 旅費贈呈、景品券贈呈、買上賞贈呈、中食써-비스

注意 우리東洋百貨聯盟店에아즉加入치안은一般商人도歡迎하오니商店名捺印하야聯盟店을志願하시는同時入場券을請求하시요(本社發行入場券이업는人은入場不許)

主催 東洋百貨聯盟店會 東京洋服商業聯合會

後援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京城府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日報 各新聞社 京城日報 鐵道局

京城驛ソウルビルヂング聯盟店限特別割引

!!生産者로부터直接小賣商人에게廉價都賣!!

今般東洋通信社와東洋百貨聯盟店과의合同主催로開催되는見本市는東京、大阪、名古屋、桐生、金澤其他各地의有力한生産者가直接仕入하게되는[illegible]

外交員掛時計日賦販賣係

相當年輩로二十五歲以上三十五歲까지의身元確實한者、步合支給、市內居住者로希望者는履歷書持參하야午後一時부터三時까지本人來訪

村木時計店

家庭敎師

[illegible]

東亞案內

典當舖

他보다高利低融通 完全한保管 京城黃金町一丁目大塚支店

電話本局二一六番

借力神藥

[illegible]

泰昌號製藥工廠

죽은개여드름

여러분의 얼굴에 여드름、기미、주근깨、잡티가、[illegible]

參補丹 光澤油

本舖 日光堂藥品部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昌成町 洪承均商店

고추가루 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어린이日曜

커트설명 커트에보이는사진은 영국왕후페하가 여섯살때 박이신 사진인데 이때는 후일에황후페하가 되리라고 꿈도못꾸엇슬때입니다。 원내에서신분이 황제페하로 역시 여섯살때사진입니다。

단오명절의 유래

창포에 머리감고 약쑥을캐고 그네、씨름、놀이도 가지가지

金 道 泰

이날을 명절로 지켜오기는 우리조선으로 말하면 신라(新羅)때부터 시작된것이라 할수잇읍니다。

중국에서는 이날에 옛날초(楚)나라 굴원(屈原)이라는 사람이 멱나수(汨羅水)라는 냇물에빠져 죽엇으므로 대통에쌀을너허 물에던저제사를 지나노라고성대히 노리를 하엿답니다。

그러고 우리동양에서는 우주의 만물이 모다 음(陰)、양(陽)、으로된것이라하야 음은우수、양은 기수로 표현하엿읍니다。우수는 二、四、六、八、十、기수는一、三、五、七、九로되엿습니다마는 음의수는六、양의수는九로 대표통칭하엿읍니다。그중에도 양수라면 더욱순케 생각하여왓습니다 따라양수가 겹치는날이면 대개명절로 정해왓습니다。例를 들어말하자면 一月一日이라든지 三月三日이라든지、五月五日이라든지、九月九日등의날을 질겁게 맛이하는것입니다。

이다섯 명절을모다 양수가 서로겹엿다하야 중양(重陽)이라 할수도잇지마는 중양이라면 九月九日만을 가르처말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아홉(九)은양의대표수를 九라고 하엿기때문에 오직九月九日만을 중양이라고 부르게되엿읍니다。그러나 그다른 양수를 거듭한날도 중양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라고는 할수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섯 중양가운데에도 五月五日이 다섯명절의 중앙에잇다하야 더욱귀하게 여이는것입니다 五月五日의 정오를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단오라는것은 一年을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로의 十二月로 난흥中에 五月은 午에당하는달임으로 午月의 첫날이라하야 단오라고 불으게된것입니다 따라서 단양(端陽)이라고도합니다。

또한 이날을 우리말로 술이(戌衣)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날에 맨드러먹는 떡이 수레(車)바퀴처럼 둥글다하야 술이라고 불으게된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날을 여아절(女兒節)이라고합니다。그것은 五月一日부터 五日까지는 계집애들이 여러가지로 옷을지여입고 무양을내일때로 열뿐아니라 이미 시집간 새아씨들이 친정에 돌아가는날임으로 여아전이라한답니다。

행사이것저것

단오날생일은 불행하다는 미신도잇어

애호(艾虎) 옛날에는 임금께서 쑥으로 맨든 호랑이를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신일이 잇엇답니다。

선자(扇子)。또한 옛날 이날이되면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히맨들어 대궐내외 중신들에게 돌려주는일이 잇엇고 전라도의수령들은 그곳의 특산인관계로 임금께 진상은물론이오 각중신에게나 친지에게 부채를 보내는것이 항례로되여잇엇습니다。

서부(赤符)。또한 이날이되면 대궐안에서나 각중신들의집에 붉은글씨로 부적을 써서 부치는일이 잇엇읍니다 그글은 다음과 갓습니다。

창포탕(菖蒲湯)。이날 남녀의 어린이들이 창포탕에목욕들하고 울긋불긋한새옷들을 가라입고 창포뿌리를 깍아비녀모양으로 맨드러 머리에꼿기도하며 혹은 그뿌리에 수(壽)자나、복(福)자를 새여서 차기도하는데 이것은 무슨병을 물리친다는의미에서 나온것이라합니다。

그네(鞦韆) 그네를뛰어서 놉이오르기를 경쟁하는것입니다。이것을 반선희(半仙戲)라고도합니다。근래에경성부근(特히東大門外 南關王廟)에서도 만이들 이 유희를행하는데 높이올으는것을뽑아 一、二등의상을주는것입니다。이그네도 평양이 조선에서도 제일간것입니다。

씨름(角戲) 이 법은 두사람이 서로 외인샅에 샅바를 끼고 꿇어앉엇다가 일시에 일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상대편을 넘어트리는 것이니 넘어지는자가 지는것입니다。씨름을 넘어트리는 법은 여러가지가 잇는데 배지기、두름치기、니기거는것、다리거는것、맛거리치는것、팍무심기、삼삼이드는것 등이 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으로 여러사람을 넘어트린사람이 일등에 당선될것은 당연한일이지마는 여러사람이 모여 서로 비교하야 모다 떨어저 나가고 나종에 한사람을 와이고라고 일등에 당선된수가 잇읍니다。물론 일등되는 사람은 힘도 상당히 잇어야 하고 기술도 상당하여야만 합니다。매개 경향 각지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하야 성황을 이루는데 상품으로는 일등에는 큰소 한머리、이등에는 적은소한머리、삼등에는 포목같은것을 주는것이 보통입니다。

강도(競渡) 트레—쓰를빌한것입니다。한강에나아가 배트경조를 하여보는것이 조흘것 갓습니다。그러나 이노름은 지나에서 굴원의혼령을 위로하노라고 시작한것이라합니다。

술이병(戌衣餠) 도 말하엿지만 이날에는 쑥니포를 빨랏다가 떡가루에너허 쑥절편을드리고 시루에쩌서 여러번처서 동그러케 수레바퀴모양으로 맨드러 먹는것입니다。그밖에도 여러가지 먹는것이 잇엇지만은 이떡이 특별한것으로옛날부터전해왓습니다。

끝으로 五月五日에 난이는 팔자가 조치못하다고하는 미신이잇엇다는것을 말씀하겟습니다。

옛날 지나에 기배(祇寶)라는사람이 이날에 낫습니다 그어머니가 재미없다하야 길에 버렷더니 다른사람이 다려다 길럿다합니다 또한 송(宋)나라 휘종(徽宗)이라는이가 이날에 탄생하엿으므로 천영절(天寧節)을 十月十日로 곳첫습니다 그러나 그의팔자가 나뿟던인지 나종에 金나라사람에게 붓들려가 북만주의 쉬운곳에서 친히 농사를 지여먹고 살게되엿습니다。

그러나이것은 미신입니다 맹상군(孟嘗君)도 五月五日에 낫지만은 사천이 나되는 식객을두고 이름이 당시에 각국에 혼들지안엇습니까 조금도 꺼릴것이 업습니다。

少年 三國誌 (삼국지) [七]

李 傑

四、동탁 (1)

동탁은 스스로 상국(相國 총리대신)이되여 나라를 제맘대로 다스리게되엿읍니다。제맘에 틀지안호면 아모리 어진사람이라도 내여쫏거나 죽이거나하여 하로라도 백성들은 마음노코 사러갈수 없게되엿읍니다。모다 동탁을 미워하게되엿읍니다 조조(曹操)는 동탁을죽이라하엿으나 일을 그르치고그만 자기시골로 도라가서 동탁죽일공부를 하엿읍니다。

동탁을 미워하는 마음은 모다 조조의편이 되엿으니 그 사수효가 십만명이나 되엿읍니다。조조는 원소(袁紹)를 대장삼고 동탁은 화웅(華雄)을 대장삼고 기수관(氾水關)에서 싸홈을하엿읍니다。화웅은 키가구척이나되고 얼굴빗이 불덩이같이 이글이글타는 용맹한장수엿읍니다 화웅은 성난사람같이 달려들어 원수가거느린 장수십여명을 순식각에 목을베엿읍니다 원소는 어찌할줄을몰라 마음만 조리고 여러군사는 수군거리게되엿읍니다。이때마츰 한장수가 내다보며、고함을첫읍니다。

『화웅의 목은 내가 베여오리라!』

그는 바로관우(關羽)엿으니、八十二근이나되는 청룡도를 내두루며、말을 달리엇읍니다。관우는 양들만이 노는곳에 뛰어든듯 호랑이와같이 날뛰엇읍니다。천동같이하는듯한 고함소리같이 용맹스러운 화웅의목은 관우의칼날아래에 뎅겅떠러지고 마랏읍니다。

오즉 화웅만을 바라고 날뛰든 동탁의 군사는 어미일흔 양새끼같이 헤여젓읍니다。화웅이죽자 여포(呂布)는 三천명의군사를거느리고 호로관(虎牢關)으로 가서 싸호자 방열(方悅)、쾌모(蒯瑁)、원유(袁遺)、목순(穆順)이란 여러장수를 죽이고 무안국(武安國)이란 이름난장수는 두팔을 잘리고 마럿읍니다。이때 장비(張飛)는 내다르며

『여포야! 장비의 창을 받어라!』하고 내닷자 관우와 현덕도 뒤를 대여서 내다럿읍니다。그러케도 용맹스럽든 여포(呂布)도、이미 운이지남을 깨닷고 그만 도망질하고 마럿읍니다。

아기소설 내것·네것

丁 津 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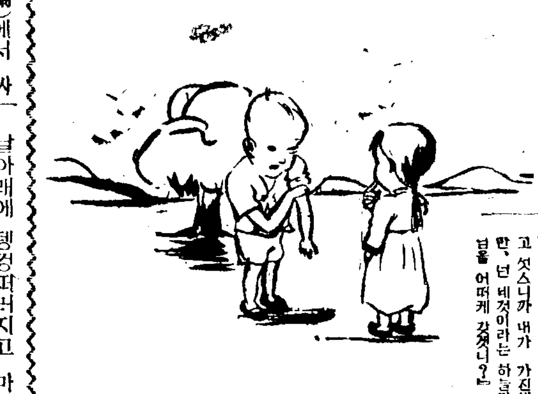
천이와 옥이는 서로 동갑인 여섯살 오순도순 정답게 잘 놉니다가 가끔 살 싸우고 토라젓다가 뚜 이내 와가 맛으며 사이조케지냅니다。

오늘은 동산에서 놀다가 이런 말다툼이 벌어젓지요。

천이가 느티나무 밑으로 가며 『이 느티나무는 내거다』 하고 느티나무에 손을 집으면서 『이 느티나무 그늘에선 내가 놀테다』

『저 밭섬은 내거야 넌 발서우것이지요。그러니까』하였습니다。 공연한 트집을 뻬든 하고 옥이도 지지안코 나섯습니다。

『동내앞 벌판은 내거지 너 인제부터 벌판에서 못뛰논다』 『그러문 난 또 저 앞산꽃산을 내거할테야! 너 접때 꽃산에서 진달래 한아름 꺽엇지 인제 다시 찾엇다』 [illegible]



다。그러다가 나종에는 천이가、『이 땅덩어린 죄 내거야 너도 시방 땅우에 올라섯지! 너 내 땅우에 서지 말라구하문 어떠케 할테니?』 하고 팔뚝 소매를 걷으며 말하엿습니다。

천이는 옥이가 다시 더 할말이 없을솔로 알고 마우 뻐겻습니다。그러치만 영리한 옥이는 서슴없이 한울을 처다보며 말하엿습니다。

『하늘하구 햇님하구는 내거야 햇님은 이까짓 땅덩어리보담 멫곱절 더 크다고하드라 벌코 멀게 잇어서 저러케 조고마케 뵈인데— 햇님 잇는데서 보문 이 땅덩어리는 콩알만큼도 더 못해뵌다구 전에 아저써가 얘기하시지 안튼!』

인제는 천이가 할말이 없엇습니다。그래 한참 잠자코 생각햇든니 조흔 궁리가 하나 떠올랏습니다。

『땅덩어리는 사방 내가 밟드리고 섯스니까 내가 가진셈이지만、넌 네것이라는 하늘과 햇님을 어떠케 갓겟니?』

하고 참읏습니다。

『그러케 말하기로 들면、시방 우리는 햇님의 빛(光)을 받고 잇고、하늘을 머리우에 이고잇지안니?—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지뭐!—』

『하하하……』

갑자기 천이가 간드러지게 우서섯습니다。옥이도 따라서 우섯습니다。

통이의 말다툼은 그만 끝에누구든지 웃기만하면、벌서풀려서 곱한 마음은、그 흔적도없이 사라저 버리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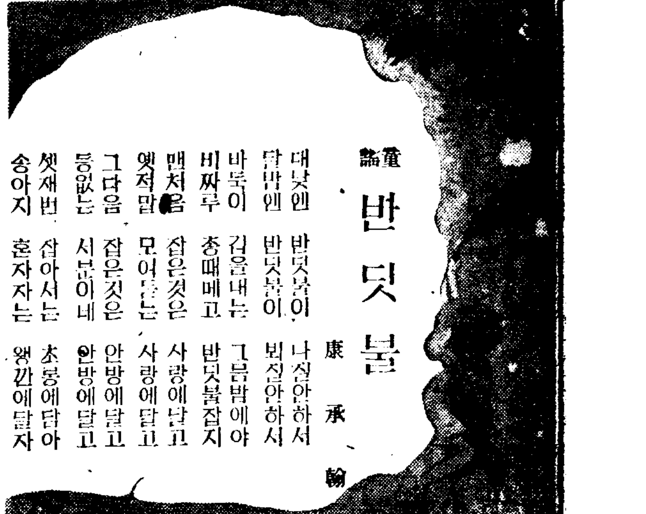
『우리 느티나무밑 그늘에서 함께 놀자!』

『응 그래 우린 동갑이고 우인데 뭐!』

천이와 옥이는 다시 정답게 손잡고 오순도순 놀앗습니다。

童謠 반딧불

康 承 翰



대낮엔 반딧불이、나실안하서
달밤엔 반딧불이、뵈진안하서
바묵이 김을내는 그믐밤에야
비짜루 총때메고 반딧불잡지

맨처음 잡은것은 사랑에달고
옛적말 모여드는 사랑에달고
그다음 잡은것은 안방에달고
등없는 서분이네 안방에달고

셋재번 잡아서는 초롱에담아
송아지 혼자자는 외양깐에달자

笑話 선생님

엄마「복희야 너이반에서 제일공부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희「아이 엄마두 그것도모르서요? 선생님이 제일야요」

오늘밤라디오

六月十二日(土)

第二放送

▼六時三十分 맨돌린과童謠
一、맨돌린合奏「바닷트의嘆息」
二、童謠獨唱
가、오빠생각(金)
나、소나비三兄弟(李)
다、비오는날담마지가자(金)
라、언니오빠목소리(李)
三、맨돌린合奏「크시코쓰의郵便車」
京城폴렉트람쓰싸이에티— 童謠獨唱 金順姬 同 李賢順
▼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初等國語講座
▼七時三十分 뉴스 天氣豫報 高橋平次郎
▼八時 라디오스켓취 늦봄은여름을부른다 ◎어린이와家庭의저녁◎ 新劇同人會 指導 鄭英徽 作案 [illegible]
▼八時二十五分 音樂演奏會 (演奏樂器) 胡弓、鉦、琵琶、洞簫、横笛、하와이안기타—、만돌린、섹쓰폰、피실로오카리나、山東笛、피리、실로폰、伽倻琴、洋琴、피아노(倂唱)、오豆감(倂唱)
▼八時四十分 音樂演奏와피아노獨奏 一、[illegible] 故鄕의하 [illegible] 다、 나를 요 라、애니、로리 二、川「小調奏…포스터曲」가、올드、블랙、조— 나、컨터기 호—ㅁ 다、수와니江 라、挽歌 安 大 善
▼九時 野談「三大火災」 庚 秋 岡
▼九時三十分(東) 時報 뉴—스

第一放送

▼六時三十分(大)お話 ▼七時 [illegible] (東)趣味講話 ▼八時(各局)[illegible] ▼八時五十分(東)浪花節 [illegible] 레코—드音樂(京城)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뉴—스、翌日順序 [illegible] 地方으로부터보내는 [illegible]

當選小說 彼岸의太陽 (10)

李圭熹 作 盧心汕 畵

이단자(異端者) (十一)

『아주머니!』

명호는 미다지를열고 형수를불럿다。

『네—』

하고 안에서는 곧 형수의 대답이 나왓다。

『머 먹을것좀주시우』

하고 명호는 인성이를도라보고 우섯다。

안방에서는 형수가 뛰어나오면서

『그럼 잡서야지。저— 미음을 가저오리까? 밥을내오리까?』

『미음잇어요?』

『밥잡수기가 어려울듯해서 미음을 좀쑤엇더니 글세 형님은 그것도 안잡수는구려。』

하고 하나에서열까지 어디까지 남편을 염녀 하는 빛이엿다。

(안해란 참으로 고마운 것이로구나!)

하고 명호는 생각하고 쓴우슴을 우섯다。

『형님이 미음도안잡서요?』

『두숫까락 뜨는서렴하드니 그것도 입에 안맛는다구 도루내놋다우。』

『그래두 미음을랑 형님이나 두구드리시우。그리고 날랑 짠지나 해서 밥을주시우。』

『밥을잡숫라구……』

『면요 젊은놈이 그까지 시골서 밥을못먹어요。아주머니 난 알일없으니 걱정마시우。』

하고 명호는 얼굴을쓰다듬어보았다。얼골이 밤새에 아주 청해저던것이다。

『그랫으면 자키나조켓우。그래두 눈은 띠꾸한데。』

형수는 염녀스럽게 명호의 얼골을 살피고 부억으로드러갓다。

얼마후에 밥상이 나왓다。밥상에는 보리밥이 한사발、된장찌게가 한뚝배기、짠지가한탕끼、그리고 어꿋소산인 조개젓、새우발이、통[illegible]이 상우에버러저 잇엇다。

명호는 밥을 밥에 둑둑퍼서 한사발을 다먹고 을— 을— 트림을 하면서 허리띠를 풀러 노핫다。

『이사람 무던이 급하게드는 사람을겸에안저노코도 먹어보란 말한마디없당。』

하고 인성이가 눈을흘기고 픽 우섯다。

『하하하 그야 자비가 사양은안켓지만 그러타고 어디 권할수잇게됏나?』

『어째서?』

『보리밥……하하하하하』

하고 명호는 우서버렷다。

『왜 사람이 저러케 쑥스러워……。자 먹엇으니 이러나게 한바꾸휘—ㄱ 노라오잖으려나? 거름을거릅는지 온』

『아모리하기루 거름이야못거를나구。그러지안하도 나가보려든 찬세。』

하고 명호가 번저 이러낫다。

『순풍에 배를탓자 뭉치들뭉치자
저하늘 흰구름을 앞서서가자
우리는 이나라의 바다의아들
어여라디야 어여디야 돗슬놉다』

하고 명호는 코스노래를부르는 것이엇다。

형근이는 거신한 얼골을내밀고

『어디가려우?』

하고 뭇는다。

『네—저 동내루좀 돌러오겟어요。그리구 개스가에두 나가보구요?』

『옵그래 댕겨오너라 나두 조금만 해도 나가겟다마는 [illegible]』

『형님은 누어게서요 내 댕겨올테니요。』

『그래。댕겨서 곧장 오너라』

『네—』

하고 명호는 인성이와함께 집을 나서다。

명호는 간밤에 지쳐서 맵파는 팜으로 너무도 씩씩햇다。어젯도 살마루가 컴컴햇다。

그좋은 좋은 길좋도라서 한가닥을끼고 마을로길로 나서라할때 춘보의집에서 곡성이 흘러왓다。

명호의 가슴에는 갈치이 확—바히는것이 잇엇다。

그좋의 거름이 홀커어지 갈수록 곡성은 여기저기 느러갓다。

수며호마을의 정절은 끔찍 눌이엇고 일봉이엇다。

優美館

Towa

新しき土 独逸版

아—놀드·팡크博士監督

西洋사람이製作한日本映畵·日本最初의輸出映畵

보시라西洋사람이日本을엇더케그려내엿나!!

主演 原節子 小杉勇 ルート·エーベラ 早川雪洲氏

東和商事映畵部提供

風雲의 欧羅巴

英國고—몬부리테잇슈特作

主演 名優巫—지아리쓰氏

13日부터

堅實家庭工業

內外地需要에應하고日常生活必需品으로됨은販路確實有利한工業으로少資本으로收入豐富하고生活安定되며自宅에서成하는工業입니다 (案內書送料四錢)

大同商事 大阪市北區...

本報京城販賣所 (電光七三〇番)

最大ナ設備ト最古ノ歷史輝キ·技術的權威アル教授網羅

夏期自動車學生大募集

▲見ヨ!!優タリ本校卒業生ノ運轉免許試驗合格數ハ毎月第一位ヲ占ム▲京城府...

南大門自動車講習所

文壇待望의 名著出現!

春園李光洙 文筆生活 三十年代表傑作全集

文章讀本

(再版發賣) ▲朝鮮語學會校閱

當代文豪春園이그卓越한鑑賞眼을기우려現下文壇에集積되여잇는作家作品中에서가장優秀한神品百餘篇을추리어서編纂한名著로서實로唐宋八大家文集에比할千古不朽의名文集이이제世上에出하노라。

▲此書는學校의課外教科書로써使用할수잇도록特히用意하야編纂하엿습니다▲

大成書林發行 京城府...

朝鮮이나흔補肺強壯丸、世界의肺病患者를救援

◎氣焰萬丈의자랑!!

本劑는內科專門醫師가心血을다하야十有二年間東西醫藥을對照研究하고百又八回의實驗을거듭한百發百中의肺病必治劑입니다

肺病根治劑 肺病專門藥

補肺強壯丸

老衰予防劑

本劑는肺病肋膜炎專門藥으로漢方의神秘와洋藥의合理를兼備한補藥이니漢方으로는五行二氣三才의補氣補血補腎劑를エキス로化하고洋藥으로는[illegible]合劑를合理的으로配合하야此에特殊한補肺殺菌劑를綜合한東西複方의一大革新的靈藥입니다

◎責任治療 本所製品은藥効本位로本所內大東醫院으로오시면肺病子宮病에對하야責任治療도施行합니다

◎醫師醫生의特典 一本所製品補肺強壯丸의特効를一般醫療機關에普及키爲하야現在開業하신醫師又는醫生으로本劑를注文하시면藥品을即時送呈하옵고其代金을服藥奏効後領收하겟사오니만흔患者에試用하심을願하나이다 (但免許證寫本과藥品送料로切手二十錢先送을要함)

醫師責任治療

肺病子宮病特効藥發見

東西復方四大靈藥

一、補肺強壯丸 (肺病必治劑)
一、調經補胎丸 (子宮病根治劑)
一、母胎強壯丸 (先天的強壯劑)
一、氣血強壯丸 (後天的強壯劑)

各十日分 一圓二十錢

先後天的新強壯劑誕生

大東醫藥研究所

藥代 十五日分 卅日分 [illegible]

京城府積善町九十一番地 大東醫藥研究所 振替京城五二二四番

大東醫院 醫師 金炳奎 小兒科 內科 子宮病

診察無料 健康相談 肺病·子宮病 責任治療

◉本研究所內大東醫院으로오시면診察은無料로하여드리오며[illegible]

中小織物工業의 助成方策을講究

殖産局서協議會招集

全朝鮮織物의具體的檢討等

人絹工場 接踵進出

夏枯序幕?

土曜 株評 — 輕率한出動을警戒

米低資中止說 虛報의貌樣

京城勞銀續騰

朝銀支店長會議

朝銀에서는 十二日 午前十時부터 朝鮮內支店長 會議를開催 加 의 事項을 協議하였다.

商工中央金庫 貸出方針을緩和

非所屬組合에도融資

米移出依然激減

◇…粟輸入도減少

東拓管內移秧用水 北少南多의모양

日銀利下說

國債擔保貸一厘下?

目下研究中

實業蔵相談

前年度郵貯利子 百三十二萬圓

商品市況

▲塗料强含 ▲漢藥材强調 ▲塗料 ▲漢藥唐材

財界瑣信

今日의市況

六月十二日

株式 / 正米 / 期米 / 商品 / 正租

株式 雙方共히 傍觀

前場閑散

時勢와市況

膠着不動 買氣極不振

財◇海◇餘◇波

强弱對立懸殊 結局은閑散持續

實物前場賣買價

期米 反房나 頭重

前場底强

動機待의場面

實氣 不振

▼東京 ▲大阪

米豆餘墨

頭上의陰晴이 二十丁을左右

堂島前場情報

鐘紡漏積 (2)

主要事業會社株便覽

合限續合

正米 再次 硬調

京城軟化

仁川軟調

群山不動

木浦釘付

釜山保合

大邱不變

內外金銀時勢

六月十二日

海外金銀 (十一日)

東京金銀

京城金銀

海外經濟

大連特産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光益